

제1호 성암산업(주)서영원 안전관리자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을 꿈꾸는 안전관리자

진강과 남해바다의 푸른 물줄기를 곁에 두고 있는 이곳 성암산업(주)에서 사업장의 무재해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노력하는 서영원 안전관리자를 2003년 제1호 자랑스런 안전인으로 만나게 되었다.

■ 사업장 곳곳에 꽃피는 자율 안전 보건 활동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운수업 최초로 KOSHA 2000 인증과 무재해 7배 달성 뒤에는 전 임직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서영원 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있기에 가능하였다.

서영원 안전관리자는 안전은 '원칙' 이라고 항상 강조 또 강조한다. 원칙을 무시하여 사고가 나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커다란 이쁨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내에선 "칼"이라 불릴 정도로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관리하여 성암산업(주)의 무재해에 앞장서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무사고 목표 달성반을 결성하여 안전성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반원 전체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안전수첩을 제작하여 동료들끼리 서로의 안전생활을 점검하고 지적함으로써 안전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안전 3분 스피치"를 통해 안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함으로써 자율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어렸을 때 꿈은 체육선생님, 지금은 안전선생님

서영원 안전관리자의 어렸을 적 꿈은 체육선생님이었으나 지금은 안전선생님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무작정 안전을 강조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 교재 발간과 강의 기법 개발 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고취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 주요 포상 실적과 앞으로의 포부

안전공단 이사장상 표창, 안전협회 광주지회상 표창, 광양제철소장 우수안전인상 등은 그동안 서영원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힘써온 노력의 결실이다.

앞으로도 KOSHA 2000의 장착, 무재해 10배 달성을 넘어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서영원 안전관리자의 앞날에 항상 밝은 미래가 가득하길 바란다. 

〈허근기자〉

